



뉴스의 인물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朴虎君 원장

취재 / 송해영 본지 객원기자  
장소 : KIST원장실  
일자 : 6월 9일 오후 3시

# “10년 안에 세계 10대 연구소로 육성”

“대한민국의 꿈과 미래인 KIST 본래의 위상을 되찾아 앞으로 10년 이내에 세계 최대 연구소로 발전하는 비전과 목표를 세우겠습니다.” 최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새 원장으로 취임한 박호군박사의 설계이다. 박박사는 본지와와의 대담을 통해 “젊고 참신하고 능력있는 연구원을 적극 유치하고 모든 대우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풍토를 만드는 현장의 최고 경영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KIST)의 새 원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위에서 박원장님께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취임 소감과 각오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국내에서 가장 큰 연구소의 소장이 된 것에 긍지를 느낍니다. 더불어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돼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새로운 발전과 전환의 계기라 생각하고 혼

신의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할 각오입니다.

### ‘최선을 다한다’는 소신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소신으로 살아온 만큼 원장으로서의 역할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신임 원장으로 어떤 연구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KIST는 조국 근대화와 과학기술 선진국의 꿈을 안고 전 국민의 희망과 염원을 한 몸에 받으며 세워졌고 대한

민국 최고의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 각지에서 모여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며 밤낮없이 젊음과 정열을 바쳐 연구했던 곳입니다. 제가 취임 때도 밝힌 바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꿈과 미래의 상징인 KIST 본래의 위상을 되찾고자 합니다. 이런 맥락으로 지난 5월 15일엔 ‘21세기 KIST 위상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KIST의 위상 정립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연구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세계 10대 연구소로 발전하는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 박원장님은 이학박사 출신의 정통파 원장으로 최우선과제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또 주력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우선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경영의 과제로 하고자 합니다. 백화점식이 아닌 전문화되고 특화된 연구를 집중 지원할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 경제 및 산업계의 기술적 수요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소수의 연구분야를 선택해 이들에 대해서 연구자원을 집중 투입하여 KIST 연구분야의 특성화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연구분야의 전문화를 이룩하고 전문화된 연구그룹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그룹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런 선택과 집중 전략을 장기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머지않아 KIST는 세계 수준의 연구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연구자들이 배출될 것입니다.

■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란 표현에 박원장님의 경영의지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내의 어떤 문제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계신지요.

환경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숨쉬고 사는 공기처럼 물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과제로 ‘금수강산 프로젝트’를 설정했습니다. 한강수계 정화연구를 1단계로 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상수원 문제를 해결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KIST는 기초기술연구회 소속으로 기초과학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인데 비해 응용분야 연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과기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 생각입니까.

기초기술 연구도 국가발전과 산업사회의 변화를 인식하고 정부와 기술의

수요자인 기업을 고객으로 존중하는 정신을 가지고 추진돼야 한다고 봅니다. 기초기술 연구라고 하면 기초과학과는 그 내용이 다소 다르지만 기술의 흐름에 있어서 산업기술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계의 수요를 예측해 5~10년 내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요소기술(Key Technology)을 개발하는 것이 기초기술이며 이런 기술을 궁극적으로 산업계에 기술 이전함으로써 연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만큼 과학기술부의 방향과 기초기술의 개발은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우는 능력·실적에 따라

■ 구조조정 등으로 연구원들의 사기가 침체돼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KIST에서 젊은 층에 속하는 원장으로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경영전략은.

구조조정의 여파로 침체된 연구분위기를 활성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적극적인 내부혁신을 통해 KIST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생동적인 젊은 KIST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젊고 참신하고 능력있는 연구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연구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한 대우는 각자의 능력과 실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풍토를 만들겠습니다. 또 KIST의 모든 가족들이 긍지를 갖고 신나게 일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연구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운영 전반에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을 도입함으로써 KIST가 생동감이 있는 젊은 모습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에 있어서

국가와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목표 지향적인 연구프로그램을 선정해 연구책임자가 책임지고 연구하고 자율성을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연구체계를 채택하려고 합니다.

■ 박원장님의 의지가 분명한만큼 KIST에 새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영철학과 이에 따른 실천사항이 있다면 덧붙여 주십시오.

‘현장의 최고 경영자가 되겠다.’ ‘귀를 열어 놓는다.’ ‘원장이 세일즈맨이 돼 뛰겠다.’ 저는 연구현장에서 ‘연구원들과 함께 하는 최고 경영자가 되자’는 경영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원장이 뭐하냐’ 궁금해하지 않도록 열린 경영을 할 생각입니다. e-mail을 통해 직원들의 건의도 받고 회의도 끝난 후 바로 공개하는 ‘열린 경영’을 할 것입니다. 또 대화를 통해서 연구원들을 이해하고 연구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같이 고민해 해결하는데 앞장설 생각입니다. 특히 ‘신속 행정’으로 연구부서의 건의를 행정 부서에서 즉시 답변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더불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바람이 있다면.

과총에 바람이라면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정착되도록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과학기술은 늘 인간과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어려워하고 이해하기 힘들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주변의 모든 것이 과학임에도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부족합니다. 특히 IMF의 어려운 시기에 이를 극복하는 것은 과학기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이해를 계몽, 홍보하는 역할을 과총이 해주길 바랍니다. ⑰